

## 200자 안내

### 사람의 아들

로아 바스프스 지음 / 남진희 옮김

중남미 소설을 대표하는 작가가 1959년에 발표한 소설로 세르반테스 문학상을 수상했다. 이따빠라는 파라과이아의 작은 원주민 마을은 스페인의 식민통치에서 벗어나자마자 또 다른 쿠데타를 맞이한다. 정치현실에 시달리는 파라과이아 원주민들은 백인들의 정치와 종교에 저항하면서 고통스런 나날을 보낸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과 내용은 성서와 교묘하게 대립된다. 스페인어 문화권에서 파라과이아만이 갖는 언어의 이중 구조로 엮여낸 작품.

동승동 / A5신 / 408면 / 5800원

### 集成材學

김수창 엮음

목재가공분야 중에서 집성재의 제조와 이용에 관한 책. 목재공학을 연구하는 학생들과 목재가공분야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질 좋은 목재재료를 제조공급해야 할 상황에서 목재수요를 만족시키고 용도와 이용가치를 높이는 사항들을 주로 다룬다. 제1장은 집성재의 명칭, 의미, 특징과 종류, 역사를 개관하고 제2장에선 집성재의 수요에 대해서 언급한다. 제3장은 집성재의 설계를 다룬다. 부록으로 목재 집성재의 한국 공업규격을 수록했다.

강원대학교출판부 / A5신 / 200면 / 6000원

### 종이비행기를 접는 여자

강혜경 지음

스물두 살의 감성적인 여자의 사랑이야기를 담은 장편소설. 주인공 강채하는 어느날 피곤에 찌들어 있는 최민혁에게 “무슨 고민이라도 있나 보죠?”라는 말을 건넨다. 무슨 방법이 있느냐는 그의 말에 다짜고짜 “죽어본 적 있느냐”는 말로 공색한 변명을 대신한다. 그후 두사람은 서로의 존재에 집중하게 된다. 그러나 민혁은 다른 여자와의 결혼을 핑계로 그녀를 떠난다. 첫사랑을 잊지못해 기다림과 줄다리기를 하는 한 여자의 내면을 그린 작품이다. 좋은아침 / A5신 / 266면 / 5000원

### 한눈에 보는 지구촌 경제

일본경제신문사 지음 / 차기태 옮김

복잡한 국제관계와 세계경제의 전체구조를 읽어내기 쉽도록 중요한 정보만을 발췌·해설한 책으로, 세계 경제와 일상생활은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시사한다. 가령 남미에서 화산이 폭발하면 커피값이 꺾충 뛰어나오고, 중동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오일쇼크가 유발한다는 것. 이 책은 신문이나 TV로 전달되는 뉴스의 어떤 부분을 주목하면 되는지를 알려주며 제1장 ‘알아둡시다’는 세계경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경제용어를 풀이하고 ‘사색의 창’은 새로운 지식과 재미있는 이야기를 소개한다. 백산서당 / A5신 / 216면 / 4000원

### 장엄한 생명의 노래

이철웅 지음

젊은 시절 홍사단에 몸담았다가 24살 때 출가해 철승스님으로 잘 알려진 저자가 과거사 성전암에 들어온 신자들에게 설교했던 법문을 엮은 책. 저자는 서문에서 종교란 “대생명의 전지전능 편제성의 장엄함을 노래하는 것”이며 “범부의 의식으로 도량할 수 없으나 언어를 빌리지 아니하고서는 교화가 불가능하다”고 말해 법문집의 의미를 전달한다. 성전암에 13년 간 칩거, 수행하고 있는 저자의 근황이 흥미를 유발한다.

불교영상회사 / A5신 / 168면 / 3000원

### 명의 명클리닉

강기희 지음

몸에 이상이 느낄때 어떤 병원, 어느 전문의를 찾아야 좋은지에 대해 정리한 의료정보서. 난치성, 희귀성 질환자를 위한 특수 클리닉에서부터 일반성질환에 대한 클리닉까지 하나의 질병만을 전문적으로 연구, 치료하는 곳이 전국 어느 병원에 개설되어 있는지를 소개한다. 또한 수십 년 동안 한 분야에서 의술을 펴온 전문의와 자신만의 독특한 치료방법으로 현대의학에서도 고칠 수 없는 고질병과 난치병을 완치시키는 민속명의로도 소개한다.

21세기북스 / A5신 / 224면 / 5000원

### 프로의 오늘이 아름답다

이승호 지음

계몽을 다하는 여성들의 성공적인 삶의 이야기가 수록된 책으로 직업을 원하는 취업희망자나 전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안내서·공무원·연구원·교사·교수·디자이너·프로듀서·통역가 등 여성들이 선호하는 전문직종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현재 이들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경험담을 들려준다. 이들은 여성도 직장을 통한 자아실현이 중요하며 직장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는 적극적인

사고방식, 모험심, 추진력, 일에 대한 프로의식이라고 꼽는다.

소담출판사 / A5신 / 336면 / 5000원

### 질주하는 밤

김창용 지음

인간의 낙원을 이루기 위해 건설된 신도시 산업도로에서 두남녀의 토막난 사체를 발견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추리적 기법의 심리소설. 한 여성이 실종했고 형사는 그녀의 행방을 추적한다. 어느날 그녀는 시체로 발견되고 범인으로 한 젊은 외과의사가 지목된다. 토막살인사건이 있던 밤의 기억이 전혀 없는데 그는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한없이 밤거리를 헤맨다.

서울창작 / A5신 / 460면 / 6500원

### 게오르크 루카치 - 맑스로 가는 길

게오르크 루카치 지음 / 김경식의 옮김

루카치의 사상을 총체적으로 조명하는 연구서. 루카치(1885~1971)는 현실정치에 관여했던 맑스주의의 마지막 거장으로 문헌사·문학이론·미학·철학·정치론 등 인문과학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지적 산물을 일구었다. 이 책은 루카치의 마지막 저서 ‘삶으로서의 사유’를 중심으로 문학비평가 이슈트만 에와르시가 해체적으로 쓴 ‘마지막 남긴 말의 권리’와 ‘신좌파평론과의 대담’, ‘맑스로 가는 나의 길’이 수록됐다. 맑스주의의 전성기와 혁신을 역설하면서 “다시 맑스로!”라고 외친 루카치의 지적 고투와 역사가 들어있다.

솔 / A5신 / 394면 / 7500원

### 설록·홈즈 정보테크닉

이상우 외 엮음

현재 추리작가로 활약하고 있는 엮음들이 설록 홈즈의 탐정법을 통해 새로운 정보활용술을 제시한다. 코넬 독일의 작품 중 일부를 발췌해 홈즈가 어떻게 정보를 수집, 활용했는가를 보여준 다음 그것을 토대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비즈니스맨의 인간관계에 있어 정확한 판단과 일을 성사시킬 수 있는 정보활용 방법도 다룬다. 추리소설을 읽는 재미와 함께 탐정법을 엿볼 수 있으며 이해를 돕는 재치있는 그림도 수록했다.

고려원미디어 / A5신 / 274면 / 6000원

### 코끼리의 코

순춘익 지음

세상살이와 경험에 대한 명상을 자유롭게 쓴 산문집. 작가의 명상이 적절하게 가미된 이 책은 ‘코끼리의 코’ ‘맛’ ‘바깥에서 본 세상’ 등으로 구성돼 각 장마다 세상에 대한 따뜻한 시각을 엮어낸다. 가난하지만 꿈과 동경으로 가득차 있던 어린시절과 여러나라를 여행하면

서본 각 민족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안내, 그리고 그 속에서 느끼는 신비감과 이질감이 나타난다. 또한 우리나라 전통의 맛을 토속적인 정서로 표현해 잊혀져가는 것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무수막 / A5신 / 224면 / 4000원

### 날마다 선보는 여자

김수련 지음

요즘 시대를 두고 “페미니즘 시대의 흥수”라고 말하는 작가가 페미니즘이 한국 사회에 끼치는 영향과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대립과 갈등의 관계가 아닌 조화와 공존의 관계가 되어야 함을 역설하는 장편소설. 여성의 사회, 정치, 법률상의 권리 확장을 주장하는 페미니즘이 전통적인 가부장제도에 길들여진 우리 사회와 여성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보여준다.

장원 / A5신 / 288면 / 5000원

### 한국 근현대 가족의 재조명

한국사회사연구회 지음

한국 근현대 가족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6편의 논문을 수록한 책. 이들 논문은 ‘한말 서울의 가족구조’ ‘한국 사회는 핵가족화하고 있는가’ ‘일·가족, 그리고 성역할의 의미’ ‘한국 가족 문제의 특징’ ‘가족·국가·계급정치’의 제목으로 각각 실렸다. 사회사 연구의 초기단계에선 가족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설명했으나 이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거시적인 사회변동과 관련짓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사회사연구회’는 사회현실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학문의 주체적 수용, 발전을 목적으로 1980년 4월 발족한 연구모임.

문화과학지성사 / A5신 / 240면 / 5000원

### 계간지

### 세계의 문학 (94년 봄호)

[기획] 최근 예술의 문체적 성격 ▲인접혼란의 언어 II ▲아우라의 상실, 그 은유한 우울 (우찬제) ▲퇴행문화시대의 예술(도정일)

[논문] ▲어느 시인의 초상-이문열 再讀(유종호) ▲동독의 후유증과 동독의 지식인들(반성완) ▲「마르크스의 유령들」에 대한 小考-유령의 시대, 푸닥거리, 그리고 역사적 텔로스의 해체(이기현)

[희곡] 여우사냥(이문열)

[소설] ▲수색, 그곳에 가지 않아도 보이는 무늬(이순원) ▲악연(남상순)

[시] 박희진/최동호/윤재림/송재학/함성호/양진건

[오늘의 문학] 실연의 저녁, 엄살의 몸-유하 시집 「세상의 모든 저녁」(이광호)

[계간 문학비평] 불꽃의 추억-송기원, 공지

영, 김영현의 소설(손경목)

[계간 사회비평] 그토록 불길한 거울의 세계 (김성기)

민음사/A5신/486면/7000원

### 실천문학 (94년 봄호)

[특집] 통일시대 민족문학의 새로운 좌표 ▲ 통일을 실천하는 문학(윤지관) 리얼리즘과 통일문화(황광수) ▲80년대 북한 소설의 한 단면(설준규) ▲통일정책과 문학(임현영)

[논문] 전환기에 선 통일논의: 통일정책과 통일운동의 재검토(이중석)

[김남주 시인을 추모하며] ▲그대, 너성변개 치는 사랑의 이 적막한 뒤끝(황지우) ▲당신은 우리와 같이(김진경) ▲대지의 삶 대지의 노래(강형철)

[소설] ▲어디 편들 꽃이 아니라(방현석) ▲서울의 빈들(전진우) ▲가깝고도 먼 길(이충렬)

[농촌시 특별기획] 김용택/박운식/홍일선/고재종/안용산/정운천/이철송/최은희 실천문학사/A5신/396면/6000원

### 역사비평 (94년 봄호)

[특집 1] 중세말 농민반란의 세계사적 이해 ▲전근대 민중운동의 논리와 이념(안병욱) ▲1525년 독일농민봉기(김현수) ▲17, 8세기 러시아 농민반란(이정희) ▲19세기 중반 중국의 태평천국 농민전쟁(박기수) ▲1894년 농민전쟁의 성격과 지향(정진상)

[특집 2] 조선총독부 연구 ▲역대 조선총독과 일본군벌(이승렬) ▲식민지 통치와 경찰(김민철) ▲사법제도 운용의 실상(정경식)

[기획 1] 서울 600년 ▲어떻게 '서울'이 되었나(남지대) ▲궁궐의 변천(홍순민) ▲산수와 지명(양보경) ▲신분분포와 주거지역(조성윤) ▲조선후기 시장과 상인(고동환)

[기획 2] 성리학의 수용과 사회변동 ▲성리학과 유물교체의 사상적 맥락(채상식) ▲고려말 토지경병과 신진사대부의 동향(이병희)

[논단] ▲고려후기 몽고침입과 민중항쟁의 성격(이익주) ▲대중가요의 선구, 20세기 초반 잡가 연구(고미숙) ▲해방후 좌익진영의 전향과 그 논리(안소영)

역사비평사/A5신/382면/6500원

### 외국문학 (94년 봄호)

[특집] 탈식민주의적 텍스트 읽기 ▲탈식민주의적 책임읽기와 영문학 연구(김성곤) ▲달콤한 유희와 고통스런 버터 읽기: 탈식민주의적 책임읽기의 한 방법(이홍필) ▲탈식민주의적 아프리카 담론의 한 전형: 치누아 아체베의 작품 세계(김순식) ▲푸에르토리코 문학에 나타난 탈식민주의 페미니즘(김창민)

[논문] ▲루카치와 황금시대 下(임철규) ▲擬

似탈근대성과 모더니즘: 박태원론(문홍술)

[오늘의 세계문학] 이슈마엘 리드(Ishmael Reed)와의 대담-다문화적 세계문학과 탈식민주의

[시] 홀리아에게 주는 시 외 5편(호세 아구스틴 고이티솔로)

[소설] 저주받은 사랑(로사리오 페레)

[서평] ▲한국 근대소설의 역사적 철교 농기(정현기) ▲보편적인 진실과 '지상의 척도'(이태동)

[작가] 윌리엄 포크너 ▲윌리엄 포크너: 삶의 실제와 작품세계(이영옥) ▲포크너의 주요 작품에 나타난 어머니의 부재현상과 그의 생애의 역동적 관계분석(신명아) ▲1940년대 이후 포크너의 미국적 경험과 역사적 안목: 「스눅스」 삼부작과 「모세역, 내려가라」를 중심으로(강희) ▲윌리엄 포크너의 작품 세계: 남부의 전통(김지원)

열음사/A5신/328면/7000원

### 창작과 비평 (94년 봄호)

[특집] 1894년, 1994년 ▲1894년을 다시 본다(좌담: 정창렬·최원식·박명규·김기정) ▲1894년 농민전쟁 연구의 방향 모색(이영호) ▲송기숙 장편소설 「녹두장군」(이상경) ▲90년대 '젊은 민족문학'의 현실(임규찬) ▲소설, 모색과 모험의 도정(서영채) ▲민중편집자로서의 셰익스피어 관중(이종숙)

[독서수상] 이즈막의 책 몇권(고은)

[문화시평] ▲저항과 도전에서 경륜의 시각으로-민중미술 10년, 그후 5년의 이야기(유홍준) ▲두 개의 중국 여행하기-「패왕별희」와 「결혼피로연」(정성일) [시론] 문민개혁 단상(임재경) [논쟁] 법성스님의 동점논쟁비판에 대하여(박성배)

[시] 이형기/곽재구/이학영/고재중/이승하/심호택/김영무/김진완/이대흠(신인)

[소설] ▲고향(현기영) ▲저 모호한 저녁빛의 시간(김향숙)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청해) 창작과비평사/A5신/488면/6000원



# “이번 원고는 아무래도 삼연에 맡기는 게 좋겠어!”

저희는 바로 이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 출판사의 편집 회의 석상에서마다 이 같은 말이 자주 나와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실제로 시간을 다투는 일이나 손이 많이 가는 까다로운 편집 일을 맡기는 데 삼연편집실만한 곳을 찾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예 원고 집필부터 의뢰해 오시는 수도 있습니다. 자체 원고의 문장을 보다 유려하게 꾸미기 위해 운문이나 교열 작업부터 맡겨 주시는 수도 있고, 좀더 세련된 레이아웃을 위해 일부러 먼 길을 찾아오시는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저희가 마무리한 일은 바로 인쇄에 들어가 출판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 컴퓨터 기종 : 서울시스템 · 매킨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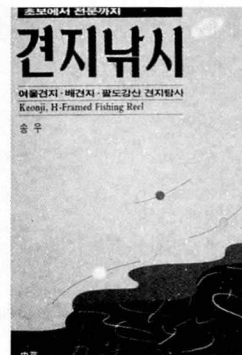
### 최근 본사를 통해 발간된 책자들



아! 고구려/조선일보사 출판국/조선일보 문화1부 펴냄/280쪽/정가 6,000원



중국시학/도서출판 명문당/이장우(영남대학교 교수) 옮김/320쪽/정가 7,000원



견지남시/사초출판사/송우(한국견지남시클럽 운영) 옮김/650쪽/정가 15,000원

총무로역: 매일경제신문  
홍도빌딩 대안극장  
중대부속병원

### 三現編輯室

대표자: 김문권  
서울시 중구 필동 2가 7(홍도빌딩 602호)  
전화: 271-0862, 0459/팩스·모뎀: 277-3166